

비즈니스 트렌드 | 백화점 남성고객 유치 열풍

그루밍족부터 게임 덕후까지... '男心' 잡아라

(자신을 꾸미는데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

여성 고객 확장 한계... 남성 공략 남성 패션·뷰티 매장 입점 활발 "아이템 이슈화해 매니아층 노려"

전통적으로 여성고객 중심의 상권으로 알려진 백화점 업계가 최근 들어 남성 고객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백화점에서 여성고객이 매출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 아직도 영업의 절대적인 주류고객이다. 하지만 백화점 업계는 이제 여성고객 확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남성 공략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실제로 2010년 28.1%였던 남성 소비자 매출이 2017년에는 34.1%까지 커지는 등 해마다 남성 고객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

남성 시장 공략은 우선 패션과 뷰티 분야에서 눈이 쏠린다. 자신을 꾸미는데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을 일컫는 '그루밍족'을 겨냥



'신세계 맨즈 라이프 삼성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남성 고객(왼쪽), 현대백화점 '플레이스테이션 라운지', 백화점업계가 남성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섰다.



사진제공 | 신세계백화점·현대백화점

한 패션 브랜드 입점이 활발하다. 롯데백화점은 3월 6일 광주점 7층에 남성 전용 캐시미어 전문 매장 '캐시미어 하우스'를 오픈했다. 남성 패션 시장이 커짐에 따라 남성 의류 소재에서도 최근 주목받는 트렌드를 반영했다는 게 롯데백화점의 설명이다. 또 서울 용산 아이파크백화점은 1일 패션파크 5, 6층의 리뉴얼 오픈을 통해 남성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5층에 남성패션, 골프, 아웃도어,

6층에 스포츠, 캐주얼 패션 등 100여개 브랜드를 입점시켜 남성을 위한 윈스톱 쇼핑 공간을 창출했다. 게임 등 남성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맞춤형 매장도 인기가 있다. 현대백화점 '플레이스테이션 라운지'가 대표적이다. 현재 판교점과 목동점에서 운영 중이다. 소니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와 협업한 체험형 라운지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과 가상현실 콘텐트를 무

료로 체험할 수 있다. 또 롯데백화점은 3월 29일 부산본점 4층에 모나미에서 출시하는 모든 펜을 만날 수 있는 전문 매장 '모나미 콘셉트 스토어'를 오픈했다. 만년필이나 잉크, 펜 등 고가 문구류에 대한 관심이 높고 기꺼이 지갑을 여는 이른바 '문구 덕후'를 위한 공간이다.

또한 삼성카드와 신세계백화점은 남성고객을 위한 백화점 제휴카드인 '신세계 맨즈 라이프 삼성카드'를 내놓았다. 자작나무 소재 제작했으며 백화점 7% 할인과 주유, 편의점, 택시, 골프, 커피 등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체의 할인 혜택을 담았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남성고객에 맞춰 단일 트렌드 아이템을 이슈화해 매니아 층을 공략하고 있는데 남성 소비 트렌드도 여성 못지 않게 빠르게 변하고 추구하는 상품도 다양화되고 있다"며 "기존 선보이지 않았던 새 콘텐트인 만큼 고객에게 신선함을 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경제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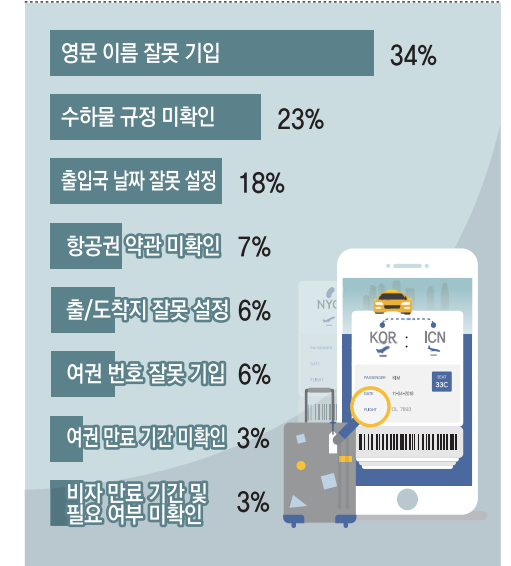
코스피지수	2450.74	▲	+6.66
코스닥지수	877.30	▲	+2.86
일 낮케이 지수	2만1794.32	▲	+116.06
중상하이 종합	3190.32	▲	+52.03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19	▲	+0.02
환율 (원·달러)	1066.80	▼	-2.70
국내금값 (원/그램)	4만5874.96	▲	+153.32

데이터 경제

해외 항공권 구매시 자주하는 실수

여행 가격 비교사이트 스카이스캐너가 항공 여행 경력이 있는 남녀 9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명 중 1명은 항공권 구매 시 실수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인 여행객이 항공권 발권 시 가장 많이 했던 실수 1위는 '영문 이름 잘못 기입'이었다. 이어 수하물 규정 미확인, 출입국 날짜 잘못 지정, 항공권 약관 미확인, 도착지 잘못 설정 순이었다. 스카이스캐너 한국 총괄 최형표 매니저는 "해외 항공권은 국가와 여행사, 항공사별로 규정이 천차만별이어서 구매 항공권의 약관 및 개인 정보 입력 사항을 한층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인 항공권 결제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8



티스테인션 미쉐린 타이어 판매

한국타이어의 자동차 토털 서비스 전문점인 티스테인션이 점차 다양해지는 소비자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4월부터 미쉐린 타이어를 판매한다.

티스테인션에서의 미쉐린 타이어 판매는 소비자들에게 한층 넓어진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타이어가 아닌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멀티브랜드 전략은 한국타이어가 추구하는 '파괴적 유통 혁신' 전략의 일환이다.

티스테인션을 찾은 소비자들은 각종 브랜드의 타이어들 중 자신의 취향과 주행 스타일에 최적화된 제품을 선택해 타이어 전문가로부터 자동차 토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국타이어는 이와 같은 유통 혁신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성열 기자
 편집 | 신혜나 기자

킹존 VS 아프리카...LCK 우승컵의 주인은?

14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결승 격돌

"2연속 우승이나, 창단 첫 우승이나." '킹존 드래곤X'와 '아프리카 프릭스'가 14일 오후 5시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2018 리그 오브레전드(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스프링 시즌 우승컵을 놓고 격돌한다. 킹존은 지난해 서머 시즌에 이은 2연속 우승을, 아프리카는 창단 첫 우승을 노린다.

이번 결승전은 2014 LCK 서머 이후 4년 만에 한국 e스포츠 성지 부산에서 열려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국제대회 '2018 LoL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 진출권도 걸려 있어 두 팀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정규 시즌 성적만 보면 킹존이 우세하다. 16승2패라는 완벽한 성적으로 일찌감치 결승



2018 LCK 스프링 결승전에서 맞붙는 '킹존 드래곤X'와 '아프리카 프릭스'가 10일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석해 우승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티켓을 확보했고, 아프리카와의 상대전적도 2승으로 앞서 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 2라운드로서 KT 롤스터를 3대1로 가볍게 제압하는 등 상승세가 뚜렷한 아프리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10일 오후 서울 삼성동 라이엇게임즈 사옥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도 양팀은 우승에 대한 남다른 각오를 내비쳤다. 강동훈 킹존 감독은 "2회 연속 결승에 진출해 기쁘다. 선수와 코치 모두 우리 팀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승으로 좋은 결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최원성 아프리카 감독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우승해서, 우승할 수 있는 팀이라는 가능성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결승전 예상 스코어를 묻는 질문에는 강동훈 감독은 3대0을, 최원성 감독은 3대2를 예상했다.

이번 대회 우승팀에는 우승 상금 1억원과 함께 5월3일부터 20일까지(현지 시각) 독일과 프랑스에서 열리는 'LoL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 출전권이 주어진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카카오 '스마트호출' 이용가격 1000원

관심을 모았던 카카오의 유료호출 서비스 가격이 1000원으로 확정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0일 '카카오T택시'에 인공지능(AI) 기반 배차 시스템 '스마트 호출' 기능을 추가했다. AI가 예상 거리와 시간, 과거 운행 패턴, 교통 상황 등으로 분석해 응답 확률이 높은 기사에게 전달해 주는 기능이다. 기사는 호출을 수락한 뒤에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다. 목적지를 확인하고 취소하면 일정 시간 스마트 호출에 응답할 수 없다. 가까운 위치의 택시가 순차적으로 정보를 보내는 일만 호출은 현재대로 목적지가 노출된다. 스마트 호출 기능을 이용하면 사전에 카카오T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도 이용료가 자동 결제된다.

국내 페이스북 사용시간 1년 새 24% 감소

국내 이용자의 페이스북 사용 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리케이션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56억분이었던 페이스북의 월간 총사용시간은 올해 3월 42억분으로 1년 동안 24%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구글플레이 소셜 카테고리 등록 앱들의 총 사용시간이 지난해 4월 155억분에서 올 3월 130억분으로 16%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크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런 사용시간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 앱으로 월간 사용자수가 10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근 기자

'쌍큐' 더한 LG 'G7'...내달 2일 뉴욕서 공개

LG전자가 새 프리미엄 스마트폰 론칭에 시동을 걸었다. LG전자는 프리미엄 전략 스마트폰 브랜드를 'LG G7 쌍큐(ThinQ)'로 확정하고, 5월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메트로 플리관 웨스트에서 공개한다. 한국에서는 5월

3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공개행사를 열 계획이다.

G시리즈에 쌍큐 브랜드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7 쌍큐는 '공감형 인공지능'(AI)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다른 기기와의

연동도 강화했다. 하정욱 단말사업부장(전무)은 "지금까지 스마트폰은 더 새로운 기능, 더 많은 기능을 채워 넣는데 집중해왔다. 이제는 실제로 고객이 얼마나 편리하게 쓰는지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이 AI 기술을 집약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편리함을 선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교육·퍼즐

에듀윌

학습관리 프로그램 '독한 에듀윌' 지원

강주현의 퍼즐월드

(모바일) WWW.경품광고쿠키.kr (모바일) WWW.매직스도쿠.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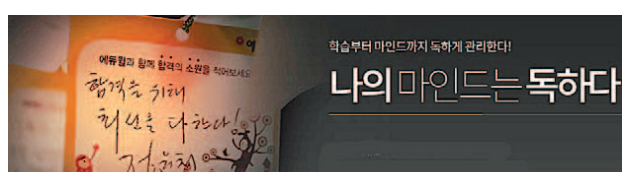
공시생을 위한 2018년 9급공무원 국가직 시험 총평

지난 7일 2018년 9급 국가직 시험이 시행됐다. 일부 과목 문항으로 인해 인터넷이 떠들썩해지기도 하는 등 공무원 시험은 지난 주말 내내 화두가 됐다.

에듀윌은 2018년 국가직 9급공무원 시험 총평을 발표했다. 공무원 시험 역시 기출문제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기출 분석은 공시생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수험가의 전문가들이 말한다.

에듀윌이 발표한 공무원 시험 총평 중 국어·영어·한국사 등 필수과목 총평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에듀윌에서 국어를 강의하는 송은학 교수는 이번 난이도를 중상으로 평했다. 2017년 상·하반기 국가직 9급 시험과 비교하면 난이도가 조금 상승했다는 평이다. 로마자 표기가 띄어쓰기 문제 유형은 평이했으나 조사 및 어미의 용법, 문법적 분석 문항은 어려운 유형으로 출제됐다고 밝혔다.

에듀윌 공무원 영어를 담당하는 성정혜 교수는 난이도를



중간 정도로 평했다. 이번 국가직 시험에서 눈에 띄는 사항 3가지로는 지문 길이의 7% 상승과 내용 일치 3문항이 출제되었다는 사실, 문맥상 어휘라는 문제 영역이 출제된 점, 어휘 문항 중 관용 표현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에듀윌 한국사 신형철 교수는 이번 난이도를 상으로 꼽았다. 이번 시험은 매우 어렵게 출제됐으며 지엽적 문제가 다수 출제됐고, 생소한 내용을 묻는 문제 출제로 인해 체감 난이도가 더욱 올라갔다는 평이다. 신 교수는 합격권 평균을 80점 정도로 예측했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스도쿠문제

		6	1	2	
6	5	8	7		
1			5	6	
4	8	1		9	
2	7	9	8		
9		2	1	7	
8	2			4	
	4	6	8	2	
6	8	4			

	4	3	8	5	
3	2			1	7
9		1		3	
6		2	3		4
	3			6	
4		6	9		1
3		4		6	
7	6			9	5
8	9	6	1		

스도쿠정답

1	2	3	4	5	6	7	8	9
2	6	8	7	9	1	5	4	3
3	9	4	6	2	8	7	1	5
4	5	1	9	8	7	6	3	2
5	8	7	6	1	2	3	4	9
6	3	9	1	5	8	2	7	4
7	9	6	5	4	3	1	8	2
8	1	2	3	4	9	6	5	7
9	2	5	1	7	4	8	3	6